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4 정기당회 및 구역회

오늘(8일) 오후 12시 본당

당회 참석대상 교회에 등록한 18세 이상 입교인

구역회 참석대상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감사, 지방회 대표

3 성탄축하파티

12. 22(주일) 오후 1시 본당

* 간단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4 성탄절 세례 신청

신청기간 오늘(8일)까지

신청 및 문의 김경현 목사 010-9211-1182

5 성탄의 기쁨을 배달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성탄송(새벽송)사역을 진행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정에서 맞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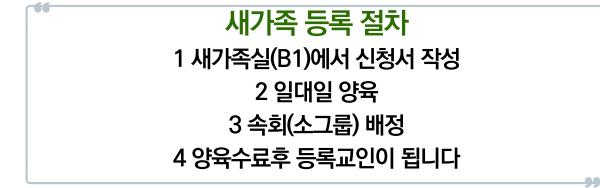
*세곡, 자곡, 율현동 거주 성도님들 10가정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유한나 목사 010-9670-0537

6 결혼

유권수 군 /정은지 양(유진태 집사 김미숙 집사의 아들)

12. 14(토) 오후 2시 오륜교회 1층 그레이스홀(교회에서 1시 출발)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섬기는 교회 |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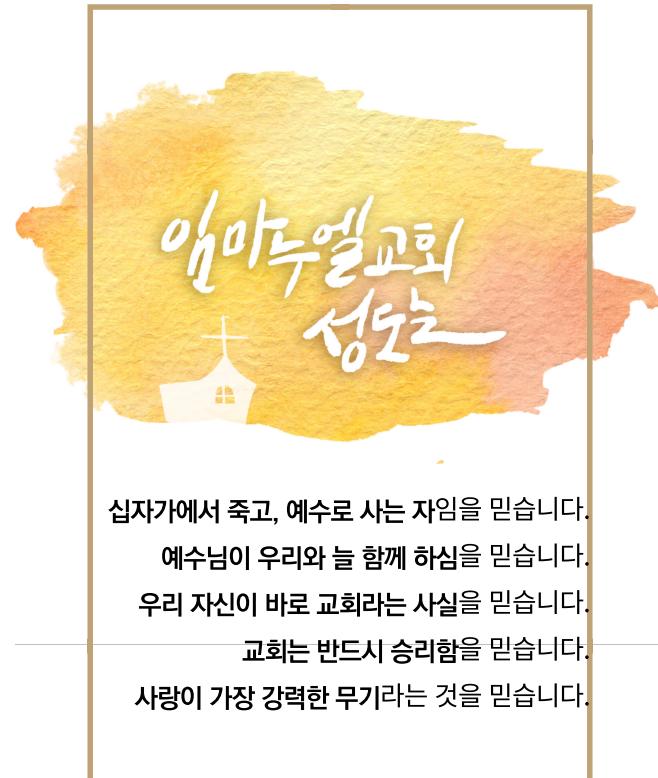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짐비아
이준 위몬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봉선목사
익산벧엘교회 미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사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1부 김현주 권사

대표기도

2부 전병희 장로

성경 사도행전 26:1-32(새번역)

사회자

특송 믿음으로 갑니다

임마누엘찬양대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행복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12/15 1부 노복임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12/22 1부 박현희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요한계시록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유한나 목사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성도의 노래

말씀_사도행전 26장



베스도와 아그립바 그리고 베니게 앞에서 바울의 항변이 시작됩니다. 2년 동안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엎던 바울은 걸모습은 초라했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처럼(22장) 먼저, 자신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대하여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증인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보내신 사명을 주셨다 선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항변을 들은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고 말하며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아그립바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한다"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화려하고 위엄있는 총독과 왕 앞에 초라하게 섰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29절)"이라 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 초라하고 지저분한 몰골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에반해 아그립바나 베스도는 값진 비단 옷을 입고, 금을 두르고, 시종을 느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걸 모습일 뿐입니다.

가정예배

바울 앞에 있는 아그립바 왕은 로마에서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가 에돔 혈통이긴 했지만 유대인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끄는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복누이 버니게와 부도덕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치장했지만, 사실 그 속은 텅텅 빈 껌데기뿐이었습니다.

아그립바와 베스도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껌데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아그립바와 베스도를 보고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태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길 수 없는 예수를 소유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내가 위축 될 때는 언제인가요?
- 2) 나보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현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율일 / 건축헌금-김바율건